



11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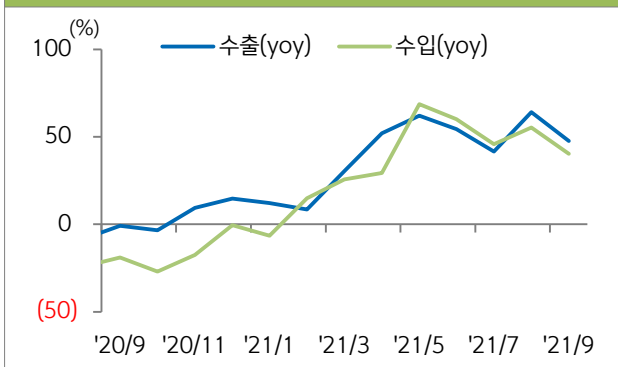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9월에도 수출입 부문이 인도네시아 경제 지속 견인

- 인도네시아의 9월 수출은 전년대비 +47.6%, 수입은 전년대비 +40.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8월에 이어 9월에도 200억 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출 실적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월 166억 대비 소폭 감소한 16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9월 무역수지는 4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으로 4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7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초대비 누적 250.1억 달러 흑자를 기록. 연간 누적 무역수지 흑자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던 2011년의 260.6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양호한 무역 수지에 힘입어 9월 외환 보유고는 1,469억 달러까지 증가
- 11월 3일 개최되는 美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파월 의장이 내년 중반 정도 종료되는 스케줄로 테이퍼링을 발표하더라도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영국 등은 조기 긴축을 시사하고, 뉴질랜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글로벌 선진국들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美 채권금리 선물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확률은 내년 12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2회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확률을 50% 넘게 반영하고 있음.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신흥국들의 대외 건전성 이슈가 불거질 경우 외국인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당분간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 힘입어 양호한 수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美 연준의 긴축 시사가 금융 시장 불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판단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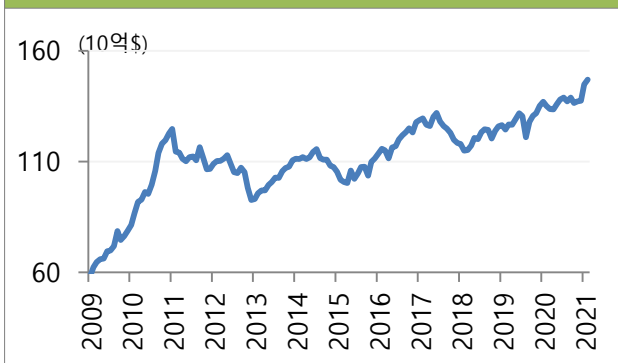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 추이



자료: Bloomberg

루피아와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029	102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44.27	1,389.24	↑ 3.96	↑ 30.84	919.08 '20/10/29	1,444.27 '21/10/29
인니	자카르타종합	6,591.35	6,643.74	↓ -0.79	↑ 10.24	5,105.20 '20/11/04	6,658.77 '21/10/18
인도	SENSEX	59,306.93	60,821.62	↓ -2.49	↑ 24.20	39,614.07 '20/10/30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547.34	3,582.60	↓ -0.98	↑ 2.14	3,224.53 '20/10/30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00.03	2,412.67	↓ -0.52	↑ 3.03	2,160.91 '21/03/09	2,503.85 '21/07/22
홍콩	H	8,961.73	9,356.85	↓ -4.22	↓ -16.55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5,377.24	26,126.93	↓ -2.87	↓ -6.81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2,970.68	3,006.16	↓ -1.18	↑ 3.38	2,267.15 '20/10/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029	102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0	2.18	↑ 1.40	↓ -38.40	2.14 '21/09/20	2.62 '20/11/04
인도네시아	6.06	6.07	↓ -1.00	↑ 16.9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9	6.36	↑ 2.30	↑ 52.20	5.82 '20/12/04	6.39 '21/10/18
중국	2.97	3.00	↓ -2.60	↓ -17.6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56	2.41	↑ 15.50	↑ 84.10	1.52 '20/10/29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029	102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52.00	22,755.00	↓ -0.01	↓ -1.50	22,748.00 '21/10/12	23,184.00 '20/11/03
달러-루피아 (IDR)	14,168.00	14,123.00	↑ 0.32	↑ 0.84	13,895.00 '21/01/04	14,640.00 '20/11/02
달러-루피 (INR)	74.88	74.90	↓ -0.02	↑ 2.48	72.33 '21/02/24	75.52 '21/10/12
달러-위안 (CNY)	6.41	6.39	↑ 0.32	↓ -1.86	6.37 '21/05/28	6.71 '20/10/29
달러-원 (KRW)	1,168.40	1,177.04	↓ -0.73	↑ 7.54	1,081.81 '20/12/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중앙은행, 신용카드 관련 규제 완화 2022년 6월까지 연장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신용카드 부채 상환 및 오토론, 모기지에 대한 상환 관련된 규정 완화를 연장하였음. 최소 납입 금액 완화, 지연 납부 시 벌칙금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주체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함

- ▶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부채의 상환과 관련한 repayment 기간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내년 2분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완화된 규정에 따라서 최소 지불은 기존에 총 신용공여 잔액의 최소 10%는 해야 되는 것에서 5%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완회되어 있음. 한편, 지연 납부에 따른 페널티 금액 기준은 15만 루피아(약 \$11) 한도로 전체 금액의 3%를 부과하였던 것을 최대 10만 루피아 한도에 전체 금액의 1%로 완화해두었음.
- ▶ 당초 이러한 완화 정책은, 최소 납입 금액 관련 규정은 올해 말까지, 지연 납부에 대한 완화는 2021년 6월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잡혀있었지만 연장되었음. 2020년 5월에 도입하여 처음에는 1년간 연장하였음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은행들이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또한 중앙은행은 최근 오토론과 주택 모기지에 대한 월 납부금 관련 일시적 완화 정책을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해두었음. 당초 2월에 도입하여 올해 3월~12월 기간 중에만 운영하기로 도입된 것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임.



금융감독청, 디지털 은행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청사진 공개



❖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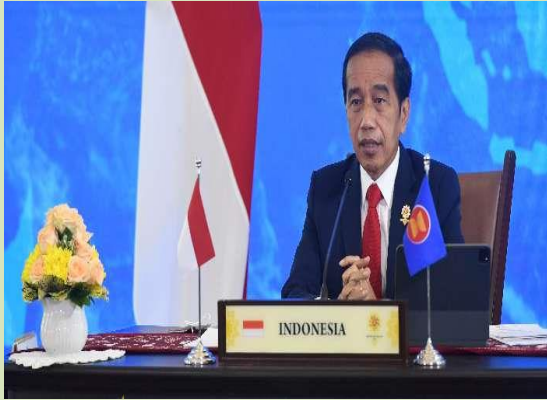
금융감독청은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및 규정, 기술 방향 등을 담은 청사진을 공식 공개하였음.

- 금융감독청은 은행산업을 창의적이고, 신뢰감있으며 포용성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디지털 은행 트랜스포메이션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 디지털 은행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청사진은 은행 산업이 전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원칙들의 형태로 관련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예방원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사진은 은행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음.
- 디지털 은행 트랜스포메이션 청사진을 통해서 금융감독청은 데이터, 기술, 리스크관리, 협력, 제도적 배열의 5대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확성, 저장 제약, 통합성, 신뢰성, 책임소재,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공정 및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감독청은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고객 데이터의 타입과 데이터 교환과 관련한 배열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으며, 운영관련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원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기술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투자와 IT의 사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과 IT 투자를 정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음.
- 기술 요소에 대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최신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을 감독청이 제공함.
- 리스크관리 요소에 대해서는 감독청이 IT 리스크 관리와 아웃소싱,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협력 요소에 대해서는 감독청이 플랫폼 공유와 파트너십의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제도적 배열 측면에서는 디지털 이행과 관련한 리더십, 준비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디지털 인프라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제시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조코위 대통령,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그린 경제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제 22차 한-아세안 써밋에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와 관련한 장래 잠재력 있는 협력 기회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높은 디지털, 그린 경제 능력과 아세안 시장의 높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접목하여 상호간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삼고 지속가능 경제에 이바지하자고 제언하였음

- ▶ 조코위 대통령은 글로벌 사회의 복지 개선을 위해 그린 및 디지털 경제에서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높은 파트너십 잠재력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미래 경제의 주요 방향이자 잠재력이 큰 디지털과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측면에서 아세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발전할 방향이 크다고 제 22차 아세안-대한민국 써밋 자리에서 발표하였음.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잠재력은 2025년까지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030년까지 그린 경제의 기회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았음. 대한민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린 경제의 기회는 2025년까지 1,440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장 잠재 규모는 2030년까지 2,360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13%에 달하고 있기에 아세안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대한민국이 그린 및 디지털 경제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하자고 하면서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늘리며, 기술 전파를 높이고, 관련한 연구 개발을 증진하는 것에 참여해달라고 하였음.
- ▶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인프라, 청정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전기차, 경제 디지털화, 보건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경제 회복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희망을 표하였음.



인도네시아, COP26을 앞두고 탄소배출 감축 방향 재확인



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REPUBLIK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 변화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는 2030년 까지 자체적인 노력으로 29% 감축, 국제사회 지원을 통한다면 최대 41%까지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이행 약정을 재확인하였음. 팜오일 화전 농업 등 임업 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 높은 인도네시아도 감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환경 및 산림부 장관은 2021년 11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 26차 UN 기후변화 회의(COP26)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지를 재천명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자체적이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29% 감축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41%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제안하고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선언은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근거한 것으로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전략과 행동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은 60% 가량이 임업 및 토지 사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가 에너지, 폐기물, 제조업 및 농업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교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41%가 1.1 기가톤의 이산화 탄소 등가물 방출 수준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지원해줄 경우 2030년까지 41%를 감축하여서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규모는 영국이 약정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임.
- 외교부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도국 수준에 있고 영국은 선진국에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2030년까지 41%를 감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국제 사회가 인지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재무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다루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지만 여전히 탄소배출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및 2차전지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 그린 경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들이 그린 관련한 활동에 예산을 배분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슬람 채권(수쿠크) 발행 과정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재무부, 석탄화력 발전 축소에 수천조 루피아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관련된 비용이 막대하다고 추산하고 있음.

전력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된 계약에 따라 중단시에는 대규모 보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PLTU)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3,500조 루피아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재무부 차관이 추산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비용을 대려면 세금 납부 금액을 통해 국가 수입을 일정부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재의 국가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29%,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 41%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국가 에너지 소비의 3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용을 마냥 줄이는 것도 국영 전력회사가 계약한 구조들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부분임.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더라도 관련 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상비용을 크게 지불해야 함.
-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내용을 10/31~11/12 기간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회의 동안 역설할 예정임.



재무부, 2021년 말까지 4% 성장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OECD와 IMF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재무장관은 최근의 인도네시아 경제의 빠른 반등흐름과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른 긍정적 수출을 감안할 때 올해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OECD나 IMF가 전망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4%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었음. IMF는 올해 3.2%, OECD는 올해 3.7%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더 높은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들었던 올해 3분기에도 4.5%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IMF와 OECD의 전망치가 너무 낮다고 하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질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최근 백신 접종과 보건 지침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경제활동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고 있는 것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주력 원자재가격들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재정 수입을 높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대외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임.
- 주요 지표만 하더라도 9월부터는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PMI 지수는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사람들의 이동성 지수도 코로나19로 인해 눌렸던 수준에서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쇼핑 지수, 차량 판매, 시멘트 판매 및 전력 소비 등도 전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경제 성장률은 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연간으로는 3.7~4.7% 범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투자부, 에너지 위기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고 판단



❖ 요약 및 시사점

투자부 장관은 유럽, 중국 등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가 낮은 전기 가격과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인도네시아가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투자 기회에 대해서도 강조

- 투자부 장관은 유럽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에너지 위기가 이들 나라의 전기 가격을 높이면서 생산자 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임. 국영 전력 공기업인 PLN에 따르면, 자바-발리 지역의 초과 공급 능력은 2,300MW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기회를 찾으라고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전기 수요의 감소를 통해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되고, 이전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전기 가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낮추고 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임.
- 투자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석탄과 화석 에너지를 금지한 조치가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가져오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다시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량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조치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전기차 투자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제공할 것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차 전지 및 전기차량 생산 관련 생태계 및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러면서도 탄소저감 및 자원 재사용을 위해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산업 생태계도 갖춰나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해양 및 투자조정부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차전지 및 전기차량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전기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국내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상품 사용 관련 규정(TKDN), 사치재로 분류되는 차량에 대한 세율을 2차전지 기반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0% 판매세율 적용(PPhBM) 등의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2차전지 및 전기차와 관련한 산업에 매우 우호적이며, 다른 어떤 국가들도 인도네시아 만큼 공격적으로 지원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정상급 전기차 생산 국가가 되기 위해 총력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음.
- 2차전지 기반 전기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전기차량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량 생태계에는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산업,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와 같은 유관 부품, 지원 분야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충전소의 건설과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의 구성에 국영전력공사(PLN)나 국영석유주회사(Pertamina) 등과 같은 공기업들을 동원하고, 민간 참여자들도 포용할 계획임. 이러한 기반 인프라가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동반되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임.
- 거기에 중요한 추가 공급망 참여자로서, 중부 솔라웨시 Morowali 지역에 올해 11월부터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을 짓는 것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나오는 금속의 99% 가량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생산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는 계획임.
- 관련된 연구개발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를 29% 감축하는 것에 있어서 전기차량의 사용 증가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 구성이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금융회사 디지털화 진행되는 가운데, 2,593개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음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에서도 모바일 뱅킹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약 5년간 여러 은행들에서 총 합산 2,593개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감독청이 조사 발표하였음.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디지털 금융 거래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러 은행들에서 총 2,593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발표되었음. 모바일 뱅킹 거래가 2016년 대비 2021년 8월에 300%까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뱅킹 거래도 50% 증가하였음. 이외에도 2015~2020년 사이에 전자적 화폐 거래가 40% 증가하였으며, 총 거래 금액도 2015년 5.28조 루피아에서 2020년에는 204.9조 루피아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도 2018년에는 85개 온라인 뱅킹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2019년 112개, 2020년에는 124개로 증가하였음. 현재 18개 은행들은 물리적 접촉이나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기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감독청 부원장은 설명하였음. 그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높은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이라고 보았음.
-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을 높이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국가 금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감독청은 2020~2025 기간에 대한 금융 산업 디지털 개발 청사진으로써의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을 발간하였음.